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싸워나가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일치단합된 투쟁으로 이룩한 2023년의 승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새년도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전략을 책정짓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2(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보고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 총화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고에서 위대한 사변과 만족한 결실들로 가득찬 2023년도의 투쟁이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성과를 결

정짓는데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현실적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당대회결정의 운명이 달려있다고도 할수 있는 올해의 투쟁에서 우리는 주체적힘,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확정된 혁명 과업을 과감히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 우리 인민고유의 백절불굴의 기상을 다시한번 과시하였으며 이 과정에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더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해의 투쟁을 통하여 예정하였던 5개년계획수행의 세번째 년도를 단순히 경과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진전속도를 더욱 가속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쟁취하였습니디.

보고에서는 인민경제전반에서 이룩된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개괄되었다.

보고에서는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보장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지배적고지인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한것을 2023년도 경제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로 평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자체의 열의와 자신심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기쁨넘친 결산분배모임이 전국의 농장들에서 련이어 진행된것은 농장원들의 정신상태에서 일대 혁명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으며 이것이야말로 2023년도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쟁취한 그리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없이 소중한 변혁중의 진짜변혁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에서 성의껏 마련한 알곡을 애국미로 바치겠다고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온데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우리 당은 농업근로자들의 이처럼 소박하고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몇만의 량곡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며 이 단위들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는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었다.

전원회의는 김정은원수님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보고에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조선로동당

이 제일 큰 힘을 넣은 중대국사인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에서 혁혁한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평가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023년을 과학기술부문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 해로 총화하시면서 제일 자부할만한 과학기술성과는 우주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보고는 2023년의 새로운 변화를 안아오는 데서 보건부문과 체육부문도 특색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각 도에서 당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문명창조에서 진일보를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된것을 2023년도 투쟁의 가장 의의있는 성과로 총화하시었다.

보고는 2023년에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면모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새로운 개선이 이룩된데 대하여 총화하였다.

(2면으로 계속)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1면에서 계속)

보고는 국권수호, 존엄수호를 위한 대적투쟁과 국방력강화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국가방위력의 중요구성부분이고 초강력의 전쟁억제력인 핵무기발전을 더욱 다그치는 선상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과 《화성포-18》형시험발사와 발사훈련을 여러차례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그 신뢰성과 우월성을 검증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전망적인 전략무력건설방향을 확정하였다.

적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행동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술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발사훈련들을 비롯한 중요군사활동들이 공세적으로 조직진행되고 무인정찰기와 다목적무기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진수식을 통해 공화국무력의 무비한 립전세와 발전상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특히 우리의 첫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켜 우주정찰자산을 보유할것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공화국무력현대화의 선결중대 과업실현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상승시킨 일대 장기로 된다.

우리 당이 대외사업에서 강한 자주적대와 원칙성을 견지하면서 주동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한 결과 나라의 존엄과 위상이 비상히 높아지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굳건히 지켜낸데 대하여 보고는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적으로 2023년은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한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강한 분발력과 과감한 노력으로 부흥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떠들어온 우리의 로동당원들과 성실한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에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전원회의 참가자들이 2023년의 투쟁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 앞으로의 우리 사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깊이 자각하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2024년의 사업에서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과정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금후 우리의 총적투쟁방향은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남은 2년간을 당 제8차대회 결정집행을 착실하게 결속하면서 다음단계의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과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해부터 당대회결정관철에서 미진되고있거나 결실물로 되고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 지금까지의 성과가 더욱 확대되고 은을 나라내에 하며 계획한 모든 과제들이 빛나는 결실로 전환되게 하여야 합니다.

2024년은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입니다.

다시말하여 2024년말에 가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5개년계획수행의 명백한 실천적담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핵전쟁경계에 이른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대결행동의 성격을 분석평가하시고 국가방위력의 급진적발전을 더욱 가속화해나갈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 결단을 천명하시었다.

결론에서는 유석열피뢰전정이 들어앉은이래 줄곧 약화일로로 달음쳐온 북남관계가 최근에 와서 더 한껏 추악해진 역도의 반공화국대결망동으로 하여 불신과 적대를 덧쌓고 형식상으로는나마 무력충돌방지라는 미약한 사명을 놓던 9.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파기라는 결과까지 돌아온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반 사실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과 그 특등주구들의 대결본색은 추악한 근본에 있어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로골화되고 보다 악랄하게 변이되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기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있습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들의 발악이 우심해질수록 그 어떤 형태의 도발과 행동도 일거에 역제할수 있는 압도적인 전쟁대응능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각각각 침에하게 변화되고있는 조선반도안정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예민하게 관리하며 항상 압도적인 자세에서 대응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대책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것이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수 있는 핵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에서는 군수공업부문이 국방공업의 자립적로 대강화와 무장장비개발생산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더욱 확충시켜 우리당 국방발전전략의 성공적실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3년의 국제정치형과 역량관계에서 일어난 거대한 지형적변화와 현 국제정세의 기본특징, 조선반도지역의 대외적환경을 심도있게 분석하시고 대외사업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방향을 제시하시였으며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었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변화발전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책략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당의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

결론에서는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맹렬하게 분석한데 립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로선이 제시되였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것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광풍과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이 항시적으로 지속되고있다.

반대한 쌍방무력이 대치되어있는 군사분계선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산될수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이 비정상적인 사태는 력대 피뢰전정들의 정책연장선에서 볼 때 결코 갑작변이와 같은 우연적현상이 아니며 북남관계사의 필연적결구이다.

10년도 아니고 10년째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할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관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력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백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였으며



지금까지 피뢰전정이 10여차례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는것이 그 명백한 산증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피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국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의정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없이 공언해내고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의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표현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출개에 불과한 피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논한다는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이라는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전반이 양기문화에 혼탁되었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속에 불과합니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실을 맹렬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만약 끝내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려한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대적, 대외사업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나갈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견인불발의 역센 투지와 노력에 의하여 2024년에도 당과 국가사업전반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조국청사에 결코 아로새길 위대한 변혁이 또다시 창조되리라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모두 승리에 대한 자신심과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용의주도하고 과단성있는 혁명실천으로 우리식의 발전전략을 확실하게 관철해나갈수 있는 새년도의 명료한 전진방향과 투쟁방침들이 천명된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문헌들은 우리 혁명을 즐기던 고조에도 강력히 인도하고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앞당겨오는데서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의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를 토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고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국가가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

한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고 재삼 강조하시면서 경공업성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과 각급 당 및 정권기관들, 각지의 교부생산단위들이 새년도에도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생산과 공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실행방도들을 제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우리 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담보하는 정치사업이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은 곧 사회주의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꾼들이 진정한 혁명가의 본령, 신성한 의무를 지켜 우리 당이 천만 자루, 억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들어가는 중차대한 혁명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를 토의하시었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으로서 국가예산심의조를 구성하여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을 검토, 심의하기로 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으로 《현시기 당의 령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기결하였다.

전원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새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2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8차 정치국회의가 12월 30일에 소집되었다.

전원회의에서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원회의는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2024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12월전원회의가 혁명의 요구와 주객관적형세에 정확히 부응하면서 보다 신중환 태도에서 2024년의 투쟁방향을 결심하고 해당 결정들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가 확고한 지향성을 가지게 하고 혁명의 즐기찬 양양으로 더 큰 성과들을 쟁취할수 있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를 마련하였다고 확인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목표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는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기 힘, 자기 위업에 대한 자신심에 넘쳐 위대한 인민과 함께 백배의 용기와 기세찬 분투로 미증유의 값비싼 승리와 성과를 쟁취한 2023년의 영광을 2024년에도 더 빛나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할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서하시면서 2024년의 새로운 투쟁을 앞둔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반드시 과감한 실천으로, 자라관 결실로 이어지리라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는 웅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용진하는 조선혁명의 불패성을 만방에 떨치며 우리당 투쟁강령의 성공적실행을 힘있게 견인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자각과 비등된 열의속에 자기의 력사적이고 책임적인 토의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쳤다.

위대한 승리의 해 2023년과 더불어 빛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는 시련과 기적을 통하여 검증된 우리 사상, 우리 위업의 진리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한 신념과 락관을 백배해주고 그 무엇으로써도 거스를수 없는 우리 국가의 도도한 위세를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정치사변으로 조선로동당 력사에 길이 아로새겨질것이다.

# 2024년 신년경축대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 강령의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백년대계의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며 위대한 강국의 영웅전기를 줄기차게 펼쳐가는 사회주의조국에 희망찬 새해 주체113(2024)년이 밝아왔다.

송년의 언덕에서 조국력사에 특기할 변혁의 년륜을 아로새긴 긍지스러운 한해를 총화짓고 더욱 거창한 기적과 전변으로 찬란할 래일을 확신하는 전체 인민은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고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위대한 우리 당에 대한 절대불변의 흠모와 신뢰심을 표시하고있다.

커다란 자신심에 넘쳐 새 승리를 앞당겨갈 비상한 분투정신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천만인민의 튼튼한 감격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2024년 신년경축대공연이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

일체로 굳게 뭉쳐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온 한해의 자랑찬 전진러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관람자들의 긍지와 환희의 열파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신년맞이의 서막을 이채롭게 장식하며 빙상선수들과 교예배우들, 빙상애호가들이 은반우에 무용기교와 우아하고 재치있는 룰동을 펼치였다.

관록있는 소고대가 경쾌한 장단을 높이 울리며 경축분위기를 한층 높여주었다.

위대한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계양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녀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내는 격정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령도와 정치실력으로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을 세기의 단상에 떠올리시고 자존과 자립, 자위로 부국강병하는 력동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영웅성의 상징이시며 위대한 존엄과 빛나는 영예의 거룩한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손저어 답례하시며 새해를 맞는 전체 관람자들과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덕훈, 조용원, 최통해,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무력기관 일군들이 관람석에 자리잡았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참가자들과 신년경축행사참가자들, 수도시민들, 인민군장병들, 혁명학원 학생들이 대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성원들이 관람하였다.

대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에 술단을 비롯한 관록있는 예술단체 예술인들과 시안의 예술교육기관 학생들, 빙상선수들, 어린이들이 출연하였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향도의 역센 힘으로 천만인민을 애국의 기치아래 단결시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전면적인 상승발전으로 강력히 인도해나가는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을 칭송한 시대의 기념비적명곡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송년의 마지막 한초가 신년의 첫 시각으로 이어지는 순간, 1월 1일 0시 제야의 종소리가 송엄하게 울려 퍼지며 경축의 봉화가 점화되고 장쾌한 축포가 수도의 하늘가에 환희롭게 터져올랐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울리며 새해인사를 드리였다.

사회주의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새해를 맞이한 무한한 행복과 끝없는 격정이 경축행사장에 열광의 격류가 되어 세차게 끓어올랐다.

종곡 《설날아 내려라》와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리의 국기》로 마감한 공연은 위대한 당중앙의 백성의 향도따라 총성과 애국으로 일치단합된 무진한 위세로 강대한 우리 국가의 광휘로운 미래를 앞당겨올 전체 인민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해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장내를 진감하고 축포탄들이 연이어 터져올라 경축의 밤하늘에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불야경을 펼치였다.

송년의 밤은 아름답게 장식되었으며 신년의 서막은 거창하게 열리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로고를 격려하시어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책무에 충직할 투철한 각오를 안고 2024년의 역사적진군방향을 책정하는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 토의사업에서 무한한 책임성과 견결한 투쟁의지와 용기를 보여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시

면서 12월 31일 총비서명의로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투쟁에서 투쟁으로 이어온 2023년에 우리는 역적스럽게 싸워서 것처럼 고대해왔고 반드시 얻고저 했던 성과들을 전취했으며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새로운 변혁적국면

을 여는 의의깊은 사변들로 가득 채웠다고 하시면서 이 값비싼 성과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모두의 고심어린 분투와 무한한 헌신성으로 하여 이룩된것이라고, 온 한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지도간부들이 새 년도에도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신으로 걸음걸음을 재촉해간다

면 우리 혁명과 인민앞에 지닌 중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전체 인민들과 전당의 당원들, 인민군장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온 나라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절대적권위와 강대성의 최고대표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다짐하면서 잔을 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뜻깊은 기념화복을 남기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축하연설

주체 112 (2023)년 12월 31일

동지들! 투쟁에서 투쟁으로 이어온 2023년을 이제 머지않아 바래우게 됩니다. 이 한해를 역적스럽게 싸워서 우리는 것처럼 고대해왔고 반드시 얻고저 했던 성과들을 전취했으며 2023년을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서 새로운 변혁적국면을 여는 의의깊은 사변들로 가득채워놓았습니다. 올해처럼 기울이고 고여온 심혈과 교생이 그대로 가슴벅찬 성과로 이어지고 누구나 체감하는 변화로 성큼 다가선 해가 언제 있었는지 싶습니다. 이 값비싼 성과는 여기 모인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들모두의 고심어린 분투와 무한한 헌신성으로 하여 이룩된것입니다. 동무들, 온 한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다 2023년을 궁지높이 총화한 12월전원회의장에 빈손으로 온 사람은 없으며 한사람한사람이 다 아름답고 방대한 과제들을 안고 뛰고 또 뛰면서 악전고투하여 말은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키고 당과 인민이 맡겨준 사명에 충실하여왔습니다. 교생은 많았어도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사상정신적으로 더욱 단련되고 품모와 자질도 크게 배양했으며 귀중한 경험과 교훈들을 얻었고 더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 달성한 가시적인 성과들에 못지 않게 크고 소중한 성과는 바로 우리 지도간부들이 성장한것이며 나는 이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될 새해의 승리를 반석처럼 떠받들것입니다. 새해에도 이렇게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신으로 걸음걸음을 재촉해간다면 우리 혁명과 인민앞에 지닌 중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고 기대이상의것도 이룰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무들! 더 많은 일감이 우리앞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리상하는 인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놓고

볼 때 해놓은 일은 너무도 보잘것없고 작은것입니다. 여기에 자만할 근거가 없으며 또한 만족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민의 기대에 늘 보답 못하는 우리들의 불민함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항상 자각하고 명심하며 계속 고심하고 노력하여 2024년을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더 분발하는 해로 되게 합시다. 위대한 우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전체 인민들과 전당의 당원동지들, 인민군장병들의 건강을 위하여, 온 나라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다같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주요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12월 31일 조선인민군 대련함부대장들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시고 우리 군대의 2023년도 투쟁

과 명령지시집행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온 한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군지휘관들을 통하여 전군의 모든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새해축원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무력충돌의 위험이 각일각 현실로 다가오고있는 조선반도지역의 위대한 안보환경과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대결책동의 성격을 다시금 상세히 분석하시면서 이같은 정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평화수호를 위한 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버리고 군대의 경사적인 군사적대비태를 완벽하게 갖추어나가야 할 절박성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떠맡고 국가방위의 전초선을 지켜선 군지휘관들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적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으로 하여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생길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당전원회의가 우리 혁명무력앞에 제시한 전투적과업들을 철저히 집행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이 줄기차게 전진할수록 이를 막아보려는 미

제와 대한민국족속들의 단말마적인 책동은 더욱더 가증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는 견결한 대적의식과 투철한 주적관을 지니고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가차없이 짓부셔버려야 하며 만약 놈들이 반공화국군사적대결을 선택하고 불집을 일으킨다면 순간의 주저도 없이 초강력적인 모든 수단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섬멸적타격을 가하고 철저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전군의 모든 장병들이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깊이 명심하고 자기의 총대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위업에 복무한다는 응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안고 당의 강군건설로선과 군사정책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오으로써 2024년을 전성준비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로 빛내어나가리라 하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지휘관들은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며 혁명기업의 불패성과 조국의 튼튼변영, 인민의 행복을 불가항력의 군사적조강세로 억척같이 담보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의 무장력, 계급의 전위로서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 사설 천출위인을 모시여 위대한 강국의 영웅전기는 즐기치게 펼쳐질것이다

공화국의 앞길에 보다 휘황한 미래가 펼쳐질 새해 주체113(2024)년의 첫아침이 밝아왔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공화국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역사에 료려 없는 온갖 도전과 역경을 과감히 이겨내며 2023년을 공화국의 행로에 길이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인 더없는 긍지와 자부,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다.

공화국에 있어서 지난해는 그야말로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로 충만된 해였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에서 1년은 섬광과도 같다.

하지만 2023년, 이 한해동안 공화국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비상한 속도로 전진도약하였으며 나라의 존엄과 국력, 위상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지난해 공화국에서는 세계최강의 핵병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발사훈련,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진수,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성공적발사를 비롯하여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사변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기록되었다.

오늘 공화국의 전략적협, 핵전쟁역력은 지난 년대들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비상이 다져지고 강화되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찬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을 불가국복의 안보위기에 빠져들게 하는 강위력한 절대대병들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힘을 잘 보여주었다.

력대수준을 계속 초월하며 조선인민군창건 75돐,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공화국창건 75돐을 계기로 세차례나 성대히 거행

된 열병식들은 공화국의 국력이 얼마나 강대무비한것인가를,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 는 그 어떤 요소도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는것을 만천하에 뚜렷이 과시하였다.

세계의 주요신문, 통신, 방송들은 앞을 다투어 공화국이 진행한 세차례의 열병식들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처럼 큰 열병식을 준비할 생각도 하지 못할것이다》, 《열병식들에서 조선은 자기의 국력을 세계앞에 보여주었다.》고 공화국무력의 무비의 발전상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기조를 사회주의헌법에 명백히 규정한것은 공화국의 존엄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사변적인 계기로 되었다.

뜻깊은 2023년에 공화국에서는 국가경제발전에서도 미증유의 기적과 전변들을 이룩하였다.

급속공업부문의 주체화대상 공사장들에서 팔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인민경제의 자립성이 비상이 강화되었다.

지난해 12월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온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속에 새로운 에너지를 결집한 산소열병용광로의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흥분과 격정으로 뭉개며 하였다.

단지 하나의 야금기지가 활력을 얻고 생산장성제도에 들어섰다는 자랑적대만이 아니라 금속공업의 자립적대태가 더 튼튼히 다져지고 어떤 조건에서도 국가경제를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데 그 사변적의가 있다.

안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뒤를 따라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수십여도로건설에서 혁혁한 성과가 이룩되고 청진제강소 능력확장공사장에서도 위훈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지배적고지인 농업전선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 대공작의 기쁨이 온 나라에 차넘쳤다.

관개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속에 황주강릉물길의 준공되고 농촌기계화의 동음이 전야마다 울려퍼졌다.

화학공업부문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탄산소다를 비롯한 기초화학제품의 자급률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을 때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대로 국내에 무진장한 갈탄을 급속, 화학공업발전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각지에서 수많은 지방공업공장을 이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되어 종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였다.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는 공화국에서는 2023년에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과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들을 과감히 전개하여 세인의 경탄을 자아냈다.

지난해는 공화국건설력사상 사람이 제일 많은 해, 살림집건설이 가장 통이 크게 벌어진 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응대한 구상에 따라 지난해 공화국에서는 나라의 발전잠재력과 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만복의 재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인민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태양의 성지 가까이에 위치하고 9.9절거리와 잇닿아있는 평양의 화성지구에 다양하고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초고층, 고층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들이 조화롭게 배치된 화성거리가 황홀하게 일떠서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주체건축의 본보기, 현대도시의 표본구역인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빛나게 완공되고 이 지구에서 또다시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어 금수산태양궁전 지구는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 문명이 개화만발하는 리상향으로 더욱 훌륭히 전진되고있다.

수도교외의 대평지구에 현대적인 다층, 고층살림집들이 다양한 형식과 조화를 이루며 솟아나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 평양의 북쪽편문인 서포지구에도 사회주의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전위거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놓았다.

인민들이 리상하던 무동도원, 사회주의별천지가 도처에서 경쟁적으로 펼쳐져 방방곡곡에서 경사로운 새집들이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지고 로동당단체소,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끊이지 울려퍼졌다. 그뿐이 아니다.

대중급양봉사기지의 평남면옥과 봉화대드론섬유생산공장, 평안남도농촌경제위원회 후탄전소목장, 혜산학생교복공장, 정평자라공장, 전천선적약수공장, 평안북도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이 새로 일떠섰다.

이 몇제품이 공급되고있으며 전국의 학생소년들이 멋진 새 교복과 훌륭한 학습품들을 받아 안는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 위민헌신의 세계가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가 하는것은 그이께서 지난해 자연의 광란으로 피해를 입은 안변군의 오계농장과 일랑농장을 찾으시여 내리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침수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던 그날의 잊을수 없는 화폭이, 바다물에 침수된 안석간석지까지 지나시여 허리치신 강강물속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농작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주시던 그날의 숭엄한 영상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수십년간 손대지 못했던 관개 체계가 온 나라에 퍼져처럼 뿔뿔이 생명이 전야마다 흘러드는 것을 보고 온물론의 한 주민은 《나라가 제일 어려운 때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 큰 고생을 떠맡으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제일 귀한 선물을 주시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단 말인가.》라고 격정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희세의 천출 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을 따르면 기적이 창조된다!

이것이 공화국의 강대성과 견결성, 불패성을 사변적인 승리와 혁혁한 발전성으로 과시한 뜻깊은 2023년이 역사에 아로새긴 켈리이며 거창한 승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새해 2024년을 맞으며 더욱 억척으로 다져진 온 나라 인민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아이들에게 일년열두달 하루도 빠짐없

충실히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공화국의 강성부흥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민족의 운명이고 찬란한 미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고 따르는 길에 공화국의 부강변영도, 우리 민족의 참된 삶과 행복도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그이의 령도를 일원단심 총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조선사람의 피와 땀을 지닌 사람이란 그가 어디에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사람이다. 평화과피자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어머니조국이 있고서야 해외동포들의 값높은 삶도 있다. 모든 해외동포들은 조국을 위한 길에 존엄도, 행복도, 밝은 미래도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주체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한 애국운동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존엄으로 존엄하고 강대한 공화국으로 영원히 필승불패이다.

천출위인을 모시여 위대한 강국의 영웅전기는 더 즐기치게 펼쳐질것이다.

# 이 광우에 부국강병, 부흥번영의 새 역사를 펼치는 위대한 향로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또다시 위대한 기적과 변혁의 해로 아로 새겨질 주제113(2024)년을 맞이한 천만민민의 드높은 열의가 1월의 강산에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하여 사회주의 전면적발전기가 확고한 지향성을 가지게 하고 혁명의 절기 찬 양양으로 더 큰 성과를 쟁취 할수 있는 위대한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천만민민의 애국의 힘으로 공화국을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은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야말로 과학하고 승리의 이 땅으로 부국강병, 부흥번영의 시대를 펼쳐는 강위력한 힘이라는것을 지나온 2023년을 통하여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하여 심장깊이 절감한 이 나라 인민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의 시대를 열어제기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공화국인민앞에 사상초유의 극난이 중첩된 해였다. 하지만 공화국인민은 가장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국과 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향로로 억세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향도따라 가슴벅찬 기적들과 사변들을 장엄하게 떠올렸다.

그날은 나라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천만시련도 두려울것이 없고 부흥강국의 찬란한 미래도 얼마든지 자력으로 앞당겨올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사회주의전면적발전행정의 매시마다 가장 적시적이고 과학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며 천만민민을 위대한 기적과 변혁창조에 힘차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일수 있었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중요회의들은 공화국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킨 불멸의 리징표들이었다.

세로로 주제100년대의 첫 기술시대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열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된 중요당회의들에서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백승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며 거창한 격변기를 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의들마다에서 공화국의 전진도상에 직면한 주객관적인 형세를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시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해주셨다.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강국건설업무를 즐기차게 전진시키시기 위한 위대한 전략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자력강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로선으로 재천명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일때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혹한 환경속에서도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중대결정들을 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절기찬 전진도상에 난관이 중첩될수록 더 큰 투쟁력과 분발력으로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를 확신있게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령도력과 혁명적당풍을 과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기국 확대회의,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는 전략적방침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공화국의 승리적행로로 특유의 중대한 변곡점을 마련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이 력사적인 당회의들과 더불어 이 땅에는 민족사에 획기적 거대한 사변들이 얼마나 많이 다련발적으로 펼쳐졌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에만도 국가방위력의 무진막강함을 과시하는 주제조선의 강위력한 힘의 실제성이 현이 태어났고 사회주의선경거리, 행복의 별천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랐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경이적인 성과가 이룩되는 등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충분한 발판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도 시련과 기적을 통하여 걸출된 우리 사상, 우리 위업의 진리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한 신념과 락관을 백배해주고 그 무엇보다도 기세를 높여준 것은 공화국의 도도한 위세를 힘있게 과시한 의의로운 정치사변이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소식이 접하고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해하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8차대회에 내세운 투쟁목표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는것이 이번 전진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기 힘, 자기 위업에 대한 자신심에 넘쳐 위대한 인민과 함께 백배의 용기와 기세찬 분투로 미증유의 값비싼 승리와 성과를 쟁취한 2023년의 영광을 2024년에도 더 빛나게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화국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관과 시련은 의연히 엄혹하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은 공화국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상승시킬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방향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은 곧 과학하고 실현되며 승리라는것을 철의 진리로 안고 사는 천만의 심장이 결사관철의 의지로 세찬데 높여주고있다.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천하제일강국, 천하제일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거창한 투쟁으로 천만민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공화국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 후대사랑의 열이면 찬란한 미래를 열것을 열망한다

미증유의 값비싼 승리와 성과를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새해 2024년의 진군에서 보다 큰 승리와 기적을 안아올수 있는 명확한 투쟁방향과 과업들을 밝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한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더우기 국가발전의 관건적이고도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지침행에서 책임성을 높이며 대하여》가 둘째 의정으로 논의되었다는 소식이 온 나라 인민은 한없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위인상을 더욱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은 언제나 후대육성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여왔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아끼지 않으시며 극진히 보살피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사랑이 있어 이 땅의 아이들은 사회주의조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성장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이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지침행에서 책임성을 높이며 대하여》가 둘째 의정으로 논의되었다는 소식이 온 나라 인민은 한없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위인상을 더욱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 애국의 단결하여

## 영웅적로동계급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치리

지금 통일로동계급의 가슴은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보답할 일념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있다.

지난해 우리 통일로동계급업무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 모든 성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강생의 정신과 힘이 있어 우리는 당중앙위원회가 맡겨준 기계제품생산을 제2의 천리마정신창조과정, 대중적기술혁신과정으로 전환시켜 대형압축기들을 훌륭히 제작해내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모든 성과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면서 통일로동계급업무를 비롯한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에 된타격을 안기고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립하는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또 있었는가.

우리 통일로동계급업무를 비롯한 금속공업업계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기적과 혁신을 일으킬로써 영웅적로동계급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나갔다.

통일로동계급업무를 비롯한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에 된타격을 안기고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립하는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또 있었는가.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모든 성과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면서 통일로동계급업무를 비롯한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에 된타격을 안기고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립하는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또 있었는가.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이것이 2024년의 첫 기술시대 찬만민민이 다시금 굳게 새겨안은 철대의 믿음이며 철의 진리이다.

통일로동계급업무를 비롯한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에 된타격을 안기고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립하는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믿음과 사랑이 어디에 또 있었는가.



회망찬 새해 2024년이 밝아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의사항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었다.

새해의 첫 걸음은 생활에서 첫걸음이라는 말을 자주 외운다. 인생의 첫 걸음, 배움의 첫걸음, 부부의 첫 걸음...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누구나 레사롭게 위우고 듣게 되는 이 말이 생애의 이 아침 이룰수 없는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어제 저녁이었다. 지방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마음은 인흥네거리에서 있는 우리 집 창문가로 휘둘 날아올랐다.

니 절로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하나 정작 문을 열고 들어가 볼란것은 바로 나자신이었다. 방안에는 아무도 없었던것이다.

《미령아!-》 《여보!-》 《미령아!-》 순간 섭섭한 생각이 잠자침의 비군름마냥 몽케몽케 피어올랐다.

직장에 다니는 딸애는 좀 늦는다 쳐도 집에서 너명생활을 하는 안해는 어디에 갔단 말인가. 저녁에 도착한다고 전화로 알려주지 했는데...

《당신도 참. 이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새해부터 온 나라가 그 관철으로 펼쳐나갔는데 우리 녀명원들이라고 자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선동종목들을 새롭게 고치고 좀 더 기백있게 다들 들어요. 우리도 새해의 첫걸음부터 의의있게 떼어 함께 아 니예요.》

안해의 그 말이 나의 가슴을 콩 울려주었다. 첫걸음!

이렇게 2023년의 결승레프를 중지높이 끊은 우리 인민은 2024년의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첫걸음을 준비하고있는것이다.

끝없는 비약과 혁신으로 끊어 번지는 사회주의대건설전구들과 뜨겁게 드넓은 찬야마다에서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거리와 마을, 가정마다에서도 당의 새로운 돌격나팔소리를 기다리고있었다.

새해 2024년은 이렇게 밝아왔다. 우리는 회망찬 새해의 첫걸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끝없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크나큰 포부과 리상을 안고 새해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질했다.

우리가 떼는 새해의 첫걸음!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 리켜주시길 따라 온 나라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보폭, 하나의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떼는 첫걸음이며 올해의 진군길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새해 2024년을 보다 큰 승리와 기적으로 찬만민민 승리와 영광의 해로 안아올리는 진격의 첫걸음, 승리의 첫 자욱이다.

우리가 떼는 새해의 첫걸음!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 리켜주시길 따라 온 나라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보폭, 하나의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떼는 첫걸음이며 올해의 진군길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새해 2024년을 보다 큰 승리와 기적으로 찬만민민 승리와 영광의 해로 안아올리는 진격의 첫걸음, 승리의 첫 자욱이다.

우리가 떼는 새해의 첫걸음!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 리켜주시길 따라 온 나라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보폭, 하나의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떼는 첫걸음이며 올해의 진군길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새해 2024년을 보다 큰 승리와 기적으로 찬만민민 승리와 영광의 해로 안아올리는 진격의 첫걸음, 승리의 첫 자욱이다.

우리가 떼는 새해의 첫걸음!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 리켜주시길 따라 온 나라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보폭, 하나의 모습으로 모두가 함께 떼는 첫걸음이며 올해의 진군길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새해 2024년을 보다 큰 승리와 기적으로 찬만민민 승리와 영광의 해로 안아올리는 진격의 첫걸음, 승리의 첫 자욱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 새 해 주체 113 (2024) 년을 맞으며



## 국기계양식 및 축포발사 진행

위대한 당중앙이 밝힌 전진과 비약의 휘황한 진로따라 충성과 애국의 변혁적성과와 눈부신 승리로 2023년을 빛내인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다.

보다 큰 승리와 더욱 위황찬란할 래일이 약속되어있는 새해의 첫 기술에서 전체 인민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출중한 향도력, 강인담대한 배짱과 무한한 헌신으로 주체조선의 국력과 위상을 세기의 절정에 떠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온 나라가 새해의 기쁨과 축복으로 설레이는 속에 주체113(2024)년 1월 1일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와 더불어 영광의 광장, 승리의 광장으로 빛을 뿌리고있는 김일성광장에서 국기계양식이 엄숙히 진행되었다.

정각 0시, 제야의 종소리가 새해를 알리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숭엄한 선율이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로동자, 농민, 지식인이 국기를 정중히 계양하였다.

군중들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위상, 이 땅의 모든 기적과 승리를 비껴안고 나뭇기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애국의 한마음안고 국기를 숭엄히 바라보는 군중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당중앙의 백전백승의 향도따라 상승과 변혁, 승리와 번영의 시간표대로 주체혁명의 새시대, 사회주의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김정은조선의 질풍노도치는 전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확신이 차 넘쳤다.

김일성광장, 보통강반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장소에서 솟구친 각양각색의 축포탄들

이 화려한 불의 세계를 펼쳐며 밤하늘가에 다채로운 화광을 수놓자 군중들은 경탄과 환성을 연해연방 터치였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굳게 믿고 굴함없이 나아가는 길위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신심과 락관을 백배배주며 오색찬연한 불보라가 천태만상의 조화를 이루었다.

수도의 야경을 장식하며 쏟아져내리는 령롱한 불꽃들을 바라보며 군중들은 웅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계속혁신, 전진비약함으로써 번영의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의지를 가다듬었다.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부르며 신년의 려명이 밝아온 광장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목표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 인민의 자신심과 양양된 기세로 새차게 끓어 번지였다.

본사기자



##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 진행

새해 2024년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가 2023년 12월 31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야회장소는 당의 웅대한 구상실현을 애국의 단결된 힘으로 역세게 떠받들어 우리 혁명의 줄기찬 양양을 이룩해온 긍지와 자신심에 넘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청춘들의 랑만과 희열로 설레이었다.

광장의 밤 하늘가에 《김정은장군께 영광을》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화려한 원무가 펼쳐졌다.

야회장에 약동하는 활력을 더해주며 울리는 《청

년 정치실력과 거창한 령도실천으로 조국청사에 불멸할 기적적승리와 번영의 년풍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당이어 그대 있기에》, 《인민의 나라》의 노래선률과 함께 아름다운 춤물결에 담았다.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중앙의 두리에 충성과 애국으로 굳게 뭉쳐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가는 강국의 청년된 영예와 긍지가 어려있었다.

야회장에 약동하는 활력을 더해주며 울리는 《청

춘송가》, 《달려가자 미래로》 등의 노래들과 함께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이끄는 자존과 번영의 한길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며 청춘의 용솨는 기백과 열정으로 번영의 새시대를 빛내여갈 청년들의 사기는 더욱 충천해졌다.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어 새해의 보람찬 진군길에서 혁명열풍, 애국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청년전위들의 드높은 기상

을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통일신보》편집국

주체 113(2024)년 1월 1일